



광남일보



광주조달청 '우리지역 파트너십 데이'
전통상품 제조기업 5곳·수요기관 구매상담

7



'녹차수도 보성'서 피어나는 천년 차의 약속
2~6일 한국차문화공원·보성차밭 일원

9



완도산 수산물부터 해상왕 일대기까지
3~6일 완도 해변공원서 '장보고수산물축제'

10



"종목 활성화 집중...핸드볼 부흥 이끌 것"
여명현 제4대 광주핸드볼협회 회장

12

조간 제7835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5월 1일 목요일 (음력4월4일)

이재명 상고심 오늘 오후 3시...TV 생중계

李, 상고기각 땀 대권가도 '날개'

파기환송 시 2심서 재판단...파장 클 듯

대법이 형 정하는 파기자판 희박 분석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대법원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전합 사건은 재판장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 이끈다.

전원합의체 선고는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선고는 지난달 28일 사건이 접수된 뒤 34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 측의 답변서 제출 기한 종료 이후인 지난 22일 사건을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관들은 22일과 24일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후보 사건은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전대법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며 이 사건을 회피한 노태약 대법관을 뺀 12명이 참여한다. 과반수인 7명 이상이 동의한 의견으로 이 후보 사건을 결론 낸다.

관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나 스스로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이라는 3가지 선택지를 갖고 있다.

대법원이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

죄를 확정한다면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 본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파기 환송될 경우 이 후보는 대선 레이스는 가능하지만, 사법 리스크 부담은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특권을 규정된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이 점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파기자판이다. 원심(2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그 소송기록과 1·2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 대법원이 형량을 직접 정하는 방식이다. 파기자판의 경우 주문은 '원심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유죄(형량)/무죄'와 같은 식으로 나올 수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의견이 많다. 다만, 파기자판을 하더라도 파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 후보는 전날 선고기일이 지정된 데 대해 "법대로 하겠죠"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봄 향기 가득한 함평 나비축제로 오세요" 30일 오전 '나비, 황금박쥐를 만나다'를 주제로 함평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제27회 함평나비축제' 행사장을 찾은 이상익 함평군수와 학생들이 형형색색 활짝핀 꽃 앞에서 손을 흔들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민주 중앙선대위 출범...대선 체제 돌입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전원 직책 맡아
통합 방침...윤여준·정은경 등 전면에 배치
임선숙, 후보직속기구 배우자실 실장 눈길

대선을 34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다.

중앙선대위 1차 인선은 이재명 대선후보가 강조한 대로 당내의 물론 진보와 중도·보수까지 아우르는 '국민 대통합'에 초점을 맞췄다.

선대위를 선두에서 이끄는 총괄선대위원장은 7명, 공동선대위원장은 15명 등 위원장은 모두 22명으로 꾸려졌다.

총괄선대위원장은 중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보수 핵심'으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가 맡았다.

최고위원들과 중진급, 중도·보수 표방 외부 인사들로 꾸려진 공동 선대위원장단 가운데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맡았다.

선대위에는 또 후보 직속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 등 15개의 위원회를 뒀고, 현장 밀착 의지를 담은 '골목골목 선대위'를 구성했다.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보수 출신 인사인 이석연·권오을·이인기 공동위원장 체제이고, 골목골목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이 맡았다.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경선 캠프 양도 마



정은경



박지원



신정훈



임선숙

차였던 윤호중 의원을 총괄 본부장, 강훈식 의원을 종합상황실장에 배치했다.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중앙선대위에서 각각 중책을 맡았다.

5선인 박지원 의원(목포)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자, 골목골목선대위 광주전남위원장을 맡았고, 고문단 고문도 겸임한다.

4선인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은 선대위 산하 꿈사니증위원장으로 된다.

3선인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총괄선거대책본부 농어민본부장을, 신

정훈 의원(나주·화순)은 총괄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장을 각각 맡았다.

재선인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은 후보직속위원회인 K-이니셔티브위원회 위원장 직을, 김원익 의원은 선대위 산하 미래전략산업육성기획위원장 직을 각각 수행한다.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광주 서구)은 광주시당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여수·기장)은 전남도당선거대책위원장으로 각각 된다.

▶2면에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대병원 신축 예타 통과...사업 급물살

기재부, 장흥담·주암담 도수관로 예타 대상 선정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

사(예타)를 통과·의결했다. 2022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지 2년 4개월여 만이다.

▶관련기사 3면
전남대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은 노후화된 건물을 신축해 주요 진료기능과 수술실, 권역응급센터 등 병원 대부분의 기능을 이전하고, 첨단 교육·연구시설 등의 기능을 새로 담는 계획이다.

전남대병원은 예타 통과에 따라 곧바로 기본설계 등 절차를 밟는다.

한편 장흥담·주암담 도수관로 연계 사업도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장래 가뭄 위기에 대비하여 인근 장흥담의 생활·공업용수 여유량을 주암담계통 광역상수도에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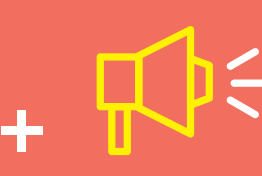
이현규 기자 gnnews1@



지속·반복적인 노출로 움직이는 영상매체



지역·타겟 맞춤광고 가능



높은 주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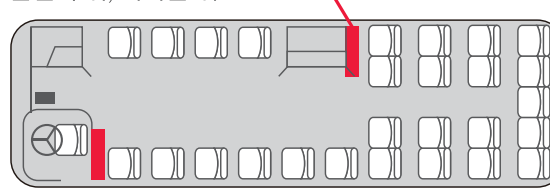


저렴한 광고비

이변정류장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2층
(중흥동)

다음정류장
H | 주 | 광주버스방송

광고매체 위치
운전석 뒤, 하차문 뒤 (총 2개)



버스 내부 모니터 광고 문의 ☎ 062) 223-6511